조선대 '군 간부' 박사학위 특혜 '쉬쉬'

단 2번 대학원 출석 1차 진상조사 무혐의 의문 증폭
학교측 2차 조사 지지부진 학위비리 게이트 확산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군 간부' 출신 인사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조선대학교가 여러 차례에 걸친 진상조사에서도 정확한 사실과 진상을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조선대와 노조 등에 따르면 올해 3월께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사학위 수여' 관련 진상을 조사해달라는 글이 게시됨에 따라 2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당사자인 A씨는 전 육군 대령 출신으로 현재 국방대학교 모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 조선대 대학원 군사학과에 입학(2015년 3월-2017년 2월)한 그는 2년(4학기)간 단 2번 만 출석해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쓴 뒤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9월 교육부는 이와 관련, 조선대에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내렸으며, 대학 측은 수업을 담당하던 교수 3명의 진술서만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지도교수들이 A씨가 수업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자신의 집과 사무실 등에서 보충수업을 진행했고, 부족한 부분은 과제물로 대체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선대 노동조합은 "해당 교수들은 1차 진상조사에도 불참하고, 수업을 진행했다는 CCTV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학은 진술서만으로 종결했다"며 "이는 명백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교수로 재직했던 B씨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보고서를 그해 12월14일 교육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고, 이에 대한 제재와 징계 조치가 없었다"며 "조사 대상자들 전체가 아닌 특정 교수와 일부 학생만을 조사해 사건을 은폐하고 감추려했다"고 지적했다.

A씨 수업을 담당했던 C교수는 당시에 군사학과 학과장을 맡았고, D교수는 군사학과 지도교수, E교수는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로 있었다.

앞서 조선대는 지난 2014년 3월 '군·학 협약체결'을 통해 군사학과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장성에 위치한 상무대 보병학교에 대학원 분원을 설치했다. 담당 교수들이 상무대로 출강, 상무대 보병학교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토록 했다.

지난해 5월 노조가 육군보병학교를 통해 확보한 위병소 출입일지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지난 2015년 4월7일 오후 6시20분, 같은 해 9월2일 오후 6시22분 단 두 차례만 대학원 수업을 위해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와 같은 수업을 들었던 학생도 "2016년 2학기 때 A씨가 수업에 참석한 것을 한 번도 못 봤다"고 증언했다.

또 영어시험을 응시한 부분도 특혜가 주어지지 않았냐는 지적도 나온다. 2학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1학기 9학점(3과목)을 이수해야만 영어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위병소 출입일지와 공문에 따라 그해 4월 하루만 수업을 들었다면, A씨는 영어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도 없다. 조선대 대학원 학사 규정 제32조에도 출석이 교과목 수업시간의 4분의 3 미만일 경우 해당 교과목을 F학점으로 처리한다고 적혀 있다.

A씨 박사 논문 심사는 이번 사건과 연루된 3명의 교수가 심사위원회(총 5명 구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황이 있는데도, 대학 측은 수년째 '학위비리 게이트'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다. '무늬'만 진상조사위원회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조선대 관계자는 "2차 진상조사가 아직 다 안 끝나서 6차 회의까지 연장을 했고, 이후 대학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날 때까지 조사는 연장 된다"면서 "심의가 종료되는 대로 조사내용을 교육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는 최근에도 모 교수가 아들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 참여, 지도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학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환준 기자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된 김모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1일 무안군 한 농로를 이동하고 있다.

성추행 신고 의붓딸 살해 계부 구속

도구 준비→살해→시신유기 현장검증도…경찰 "학대의혹도 수사"

중학생인 의붓딸(12)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는 30대 새 아빠가 1일 구속됐다.

이날 광주지법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31)씨는 앞서 이날 광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광주지법으로 이동했다.

경찰 호송차에 오르는 김씨는 흰색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로 얼굴을 가렸다. 김씨는 기자들의 '의붓딸을 왜 죽였느냐', '친모인 아내와 공모했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법원에 도착하고 나서 건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기자들 질문이 이어졌다.

김씨는 알아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듯 한 마디만 내뱉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한 영장실질심사는 약 15분 만에 끝났다. 혐의가 명백한 데다 김씨가 범행을 시인해 질문과 답변 시간이 길지 않았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목포 도심에서 무안 농로, 광주 자택, 너릿재 터널 인근 저수지로 이어지는 사건 현장을 찾아 현장검증에 응했다.

김씨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의붓딸을 불러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과정을 재연했다.

김씨가 아내 유모(39)씨와 생후 13개월 된 아들과 하룻밤을 보낸 모텔, 살해 당일 유씨가 딸 A양을 불러낼 때 사용한 공중전화, A양을 차에서 태운 거리에서도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경찰은 의붓딸 살해사건과는 별도로 계부의 성범죄 의혹 수사와 함께 여중생의 유가족이 제기한 학대의혹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하면 피해자인 의붓딸의 신분까지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오승지 기자

5월 단체, 보수단체 5·18 집회 강경대응 방침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은 것"…물리적 충돌 가능성

광주 금남로와 전남대학교 후문 일대에서 5·18 폄훼 집회를 해온 강경 보수단체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날에도 집회를 예고하면서 5월 단체 등과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광주 금남로 일대에 일부 보수단체들이 집회 신고를 냈다. 전날에도 5·18이 시작된 장소인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같은 내용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집회 신고를 낸 이들은 5·18 왜곡과 폄훼에 앞장서 온 지만원씨 등의 '가짜뉴스'를 이어받아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단체로, 금남로와 전남대 후문 일대에서 매달 한 번씩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오는 18일 금남로 4가에서 집회를 열고 충장로 우체국을 지나 광주천을 돌아오는 구간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집회·행진 장소는 시민·노동 단체가 정부 공식 기념식과 별도로 자체 기념식과 민중대회를 예정하고 있어 충돌도 우려된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가 있어 집회 신고를 불허할 근거가 없었다"며 "시민과의 충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월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집회 저지 등을 포함한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순석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대표는 "18일은 광주시민에게 더할 나위 없이 특별한 날"이라며 "그런 집회를 한다는 것은 망언보다 더 5·18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후식 5·18기념행사위원장도 "기념식 날 특별한 의미를 갖는 금남로에서 어떻게 그런 집회를 할 수 있느냐"며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환준 기자

특조위, 세월호 'CCTV 조작' 거듭 제기

목포신항 선체 내서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의 주요 증거물인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과 관련, 유가족들이 1일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세월호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장 정성욱씨는 이날 세월호 선체 내부 중앙홀에 안내데스크 모형을 재현하고 "당시 CCTV 증거자료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기존의 CCTV 복원 영상은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오전 8시46분까지만 존재한다"며 "하지만 그 이후에도 선원과 생존자가 CCTV 화면을 봤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특조위 관계자가 이어받았다. 특조위 관계자는 "5층 조타실에서 CCTV를 보고 기관부 선원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는 선원 진술이 있다"며 "시간상 9시30분 이후까지 CCTV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자 역시 안내데스크 근처에서 CCTV 모니터를 통해 가족을 찾고 있었다가 헬기가 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목포=강효종 기자

"야, 알바생! 돈 벌기가 쉽냐"

딱딱이

○…광주의 한 편의점에서 자신이 주문하던 담배 이름을 종업원이 모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편의점 내에 비치된 물품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

○…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40분께 북구 동림동의 한 편의점 내에 비치된 두리마리 화장지를 던지며, 숙취해소제 등 도합 2만6천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

○…경찰 관계자는 "종업원이 '아크'라는 담배를 모르자 A씨가 '야 XX새끼야 돈 벌기가 쉽냐'라는 욕설과 함께 편의점 물품을 훼손했다"면서 "카운터에 진열된 담배를 가리켜 알려주면 될 것을 담배 이름을 모른다고 소동을 피워서는 되겠냐"고 한마디.

/최환준 기자